

# 조부모전환기 조모가 인식한 손자녀 양육지원과 가족의 역동\*

Supporting child care and dynamics of family in transition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겸임교수 권 은 비\*\*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이 정 화\*\*\*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art Time Professor* Kwon, Eun Bi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Lee, Jeong Hwa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Kim, Seon Mi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s of grandmothers and family in transition. Grandmothers in transition means grandmothers who had married children at least one even if there are no grandchildren yet.

The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20 grandmothers in transition of 5 focus group(each 4 persons) interview. 9 of them was pre-grandmother without grandchildren yet, 11 was grandmother who had grandchildren.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C00003)

\*\* 주저자 : 권은비(hicetnunc00@naver.com)

\*\*\* 교신저자 : 이정화(jyjh0222@daum.net)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eaning of grandmotherhood. Dynamics of family in transition around supporting child care represent change of family relations. It didn't means 'empty-nest' model of foreign theory. The Absolute quantity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conflict extended as three generational families.

Key Words : grandmother in transition(조부모전환기), supporting child care(손자녀 양육지원), grandmotherhood(할머니됨), modified extended family(수정확대가족)

## I. 서론

더 이상 100세 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현대인에게 연장된 인생후기는 이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시기이며, 새로 획득한 이 시기의 역할에 대한 롤모델이나 각본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인생후기와 관련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사실 조부모가 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이룩하거나 성취해내는 사건이 아닌, 자신의 성인자녀가 출산을 하면서 피동적으로 얻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부모 고찰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부모로서의 정체감 형성, 즉 어떤 조부모가 될 것인가, 어떤 조부모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부모됨의 과정보다 선택적인 문제이며, 여기에 조부모가 살아온 생애와 경험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성인후기가 길어졌으며 은퇴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축소가 주를 이루는 이 시기에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이 조부모임을 연관 지어 볼 때 조부모 역할획득의 능동성과 피동성을 떠나서, 길어진 조부모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부모 역할은 가족 내에서 부여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족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과

거의 대가족 제도가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조부모의 위상이 약화되었으나 실제 조부모의 역할 자체가 축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성인자녀세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은 성인자녀의 가족발달단계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의 형태가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 되었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비 핵가족화(주봉관, 2000)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정확대가족, 잠재적 확대가족 등으로 불리는 가족형태는 거주는 따로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가정형 성기에 경제적 지원,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도구적 지원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집에 잤은 빈도로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는 가족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구조적으로는 분리되었으나 기능적으로는 상호작용이 원활한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조모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이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춰왔을 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정과 그 과정을 겪는 가족에 관한 심층적인 접근은 부족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2011년부터 '손자녀돌보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에서는 2011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

는 ‘손주돌보미’제도<sup>3)</sup>를 도입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3: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여성가족부는 연 400억을 들여 ‘손주돌보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백지화된 상태다. 정부가 영유아 돌봄 책임을 조부모에게 떠맡기려 한다는 가족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 노화로 인해 힘든 조모에게 신체적 부담을 준다는 노인복지 측면에서의 비판과 여성노인에게 집중되는 양육지원부담이 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젠더관점에서의 비판, 그 밖에도 너무나 싼 값에 조모에게 짐을 지운다거나 조모 외의 다른 사적양육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는 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 중에 정작 당사자인 조모집단의 목소리는 부재했음을 상기해보면, 손자녀 양육지원이 조모의 삶에서 가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당사자의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내부자시각을 드러내주고 연구내용에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는 총체적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통해 포괄적인 내용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추출해내며, 손자녀 양육을 둘러싼 조모들의 토론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주제들, 전환기 조모들의 가족환경 및 손자녀 양육지원의 실제들을 현장맥락에서 규명함으로써 다른 조모들의 삶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각본을 제시하거나 제거해야 할 억압적 요소는 무엇이며, 조모들이 가진 충족되어야 할 욕구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결핍 요소는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조부모 역할의 획득이란 중년기 혹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김미영, 2001)이 아닐 수 없다. 비슷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개인의 경험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연령에 기반한 발달단계로 묶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가 되는 것’을 삶의 특정시기에 일어나는 단일사건이 아니라 생애과정상의 전환적인 사건으로 보고 조부모로의 전환을 겪고 있는 예비조모와 초기 조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손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조모와 실제 손자녀가 있는 조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험과 자연 언어를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가족 내 역동과 조부모기의 모습 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조부모전환기 가족

#### 1) 가족발달단계상 조부모전환기

엄밀히 말해 기존의 가족학 이론에서 조부모 전환기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Carter와 McGoldrick(1989)이 구분한 가족발달주기는 결혼전기, 결혼적응기, 자녀아동기, 자녀청소년기, 자녀독립기, 노년기로 나누어지며, Galvin과 Bromell은 저서에서 논의를 위해 많은 가족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조합하여 가족발달단계를 ①에착이 형성되지 않은 성인초기 ②“약혼”시기 ③신혼기 ④

- 1) 광주광역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게 출산, 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으로써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조부모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돌봄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돌볼 경우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 2) 서초구는 두자녀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15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의 조모 또는 외조모에게 월 40시간 아이돌봄 활동을 시간당 6천원, 월 24만원을 지원한다.

최초의 부모기 ⑤개별화단계(취학 전 자녀, 학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⑥진수기(Launching centers) 가족(첫 자녀의 진수에서 막내 자녀의 진수까지) ⑦중년기(자녀가 떠나는 시기로부터 은퇴까지) 혹은 후기부모기 가족 ⑧노년기가족으로 분류하였다(Galvin & Brommell, 노영주 역,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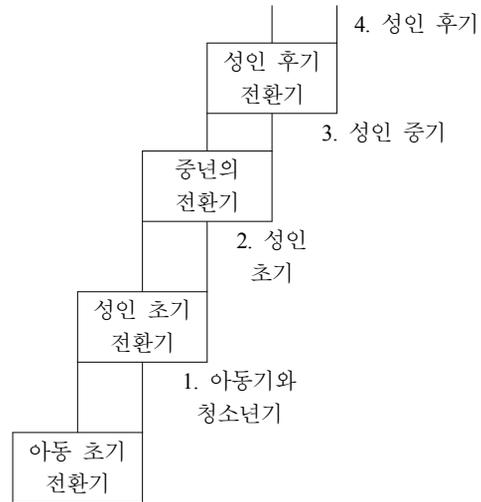
그 중 진수기 가족은 첫 자녀가 세상을 향해 “진수(launching)” 하면서 다음 단계가 시작되며, 매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노영주 역, 1995). 학자들이 제시한 이 시기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빈 등우리” 모델과 곡선모델이다. 첫 번째 “빈 등우리” 모델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자녀의 진수, 즉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며, 두 번째 곡선 모델은 양육 의무를 거의 완료한 부모가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성의 증가를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발달단계는 개념상으로는 순차적인 단계이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는 각각의 단계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순차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 임신을 하고 결혼한 커플의 경우 신혼기와 최초의 부모기를 동시에 겪게 되며, 가장이 조기은퇴를 한 가족의 경우 진수기와 중년기가 겹치게 된다. 따라서 가족발달단계의 과정은 한 단계가 끝난 후 한 단계를 맞이하는 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조부모전환기 가족 역시 어느 한 발달단계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에 걸쳐 분포하는데,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녀의 진수는 주로 ‘결혼’과 함께 일어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진수기와 중년기는 거의 같은 시점에 겹쳐있다고 볼 수 있다. Neugarten(1986)의 ‘사건발생 시기 모델’에 따르

면 성인기, 노년기의 발달은 시간표가 아닌 개인의 인생에서 발생하거나 경험한 주요 사건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사람들은 인생에서의 특정 사건들의 영향과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반응하며 발달한다는 것이다.

레빈슨(1996, 김애순 역)은 인생주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인초기와 성인중기를 명백하게 정의하고 서로 다른 시대로 구분하였다. 레빈슨의 이론에서 전환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옮겨가는 것이 단순하거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교차되는 사이에 오는 평균 4-5년 동안 지속되는 전환기를 거쳐 개인의 인생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 전환기는 발달단계들을 이어주고 시대들 사이에 어떤 연속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단계이며, 발달적 전환기는 가는 시대를 마무리 짓고 오는 시대를 시작하는 경계지역을 만들어낸다.



〈그림 1〉 레빈슨의 인생발달구조

레빈슨(2004, 김애순 역)에 따르면 인생구조의 발달에서 전환기는 X와 Y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전환중’에 있다는 것은 X를 떠나면서(완전히 그것을 떠나지 않은 채), 그리고 동시에 Y로 들어가는(완전히 그것의 일부가 되지 않은 채)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전환기는 X와 Y를 잇는 경계 지역이다. 이 경계 지역은 X와 Y의 일부이지만 질적으로 양쪽과 다르며, 현재 내가 X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Y로 들어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전환기란 약속의 시기이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과 가능성의 시기이며, 분리와 상실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가족은 자녀 독립기,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가족에 분포하는 가족으로서, ‘조부모됨’이라는 생애 사건과 관련된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조부모전환기 가족이라 명명하였다.

## 2) 세대 간 지원을 중심으로 본 한국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특성

손자녀 양육지원은 손자녀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성인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세대 간 지원의 한 종류로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련한 해외의 연구는 세대 간 지원(intergenerational support)이나 세대 간 지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의 일례로 손자녀 양육지원을 다루고 있다(이재림, 2013). 기혼 성인 자녀가 도구적 지원을 받기위해 부모의존적 동거를 하는 ‘연어족’이라는 표현이 등장(동아일보, 2012.8.25)하기도 하는데, 한국 가족의 세대 간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미덕이자 효의 실천으로 보았으며 자녀가 노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가족 부양체계가 확고하였으나, 핵가족화 및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는 세대 간 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이윤정·고선강, 2011). 통계청

의 201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6.0%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2년의 70.7%에 비해 매우 약화된 부양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자녀의 혼수나 신혼 집 마련 등의 결혼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8.8%(통계청, 2008)에 달했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당연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부양체계의 부족으로 자녀에 의한 부양과 지원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음을 밝혔고, 동시에 자녀들 또한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등 일상에서의 도움을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김상욱, 2010).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샌드위치’ 세대 담론은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따라 위로는 부모에 대한 의무로 그들을 부양했으나, 자녀세대에게는 부양을 받는 대신 지원해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중년의 부모 세대에 대한 위와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자원을 주고받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세대 간 지원이전은 주로 생존해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것부터 가족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 사회적 지원 교환(social support exchange)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금전적 지원, 도구적 지원을 포함하는데, 사회적 지원 교환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적 지원보다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등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이루어져왔다(고선강, 2012). 지원이전에 있어 중요한 변인은 제공자와 수혜자의 특성으로 연령, 학력, 직업지위, 결혼상태 등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끼친다.

기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의 제공 및 수혜의 양상을 살펴본 한경혜·김상욱(2010)의 연구에서는 남편부모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제공을 하고, 아내부모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수혜를 받는 기혼자녀의 경향이 나타나 비대칭적 양계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기혼 성인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편부모와 아내부모 양측으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초기 단계나 자녀양육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시기의 자녀에 대해 시가와 처가 부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핵가족을 이루지만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세대 간 연계성에 대한 확인이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동인을 추적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의미에서의 세대 간 지원이나 세대 간 자원이전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가족 내 상호작용 특히, 손자녀 양육지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가족 내 교류의 역동적인 모습을 분석할 것이다.

## 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 1) 손자녀 양육지원의 상황과 특성

가족은 사회의 최소단위(unit)이자 개인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터전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울타리 혹은 보호막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혹은 구성원이 병에 걸린 경우 가족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으며 가족 내 돌봄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화 되어있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

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다.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으로 인한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자녀수의 감소와 핵가족화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 내 돌봄 노동을 수행하던 역할에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남성이 홀로 가장(breadwinner)이던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가족이 2인 소득 모델로 변하면서 가족의 많은 기능들에 공백이 생겼고 이러한 가족 기능은 필연적으로 사회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수행해 오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나 정책, 제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으나, 아동보육에 있어서 사회가 여성노동력을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시장에서 선점한 아동 돌봄과 양육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양육의 질, 신뢰도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는 잊어버릴 만하면 뉴스에서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안전사고, 사회구성원들의 공분을 사는 교사나 돌보미의 아동 학대문제 등, 공적 보육이 질적인 면과 신뢰성 측면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보육의 사각지대, 예를 들어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설의 여닫는 시간이 어긋난다거나, 24시간 보육시설의 부족 등이 사적 보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다. 특히 연령이 낮은 영유아일수록 사적 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연령별 양육지원서비스를 부모 이외에 누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세 미만의 경우 조부모가 82.6%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으며, 1세~2세 미만은 74.2%, 2세~3세 미만은 30.6%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사적 보육, 특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몇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문화 혹은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주의가치관이다. 넓은 의미에서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박혜인, 1990)이며,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와 같은 부양의식, 가족주의 등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제도적 속성이 뚜렷하고, 부계가족 중심이며, 개인이나 사회보다 가족이나 가문을 우선시하며, 가장권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나 부부관계가 구성되고, 성별 역할 분리가 엄격한 특징을 갖는다(옥선화·진미정, 201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효(孝)를 미덕으로 삼았으며 자녀가 노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모습의 가족 부양체계가 나타났다(이운정, 고선강, 2011).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의 학업은 물론 취업과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부양책임을 갖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경섭(2011)은 이를 도구적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하였다.

두 번째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특히 자녀양육에 관한 한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는 강한 전제는 여성의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손자녀 양육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강인하고 완벽한 엄마, 모성에 대한 신화는 여성들에게 강박적으로 작용하여 소위 수퍼 우먼 콤플렉스라는 집단적 병리현상에 사로잡히게 하고 위대한 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떠맡게 된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젊은 여성들의 혼인 기피 현상이나 출산 거부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전문희, 2010). 그렇게 사회로 진출한 모성의 빈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가장 가까운 대리 혹은

유사 모성으로,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는 가족주의가치관과의 일종의 결합이며 가족 내 양육담당자의 역할수행을 모두 마친 조모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전통적 성역할을 중복 수행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과 관련해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외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취업모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한국의 친족관계가 양계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성미애, 2006)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외조모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처계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는 것만을 토대로 현대 한국가족의 친족관계가 양계적 속성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양계적 속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옥선화, 2011)한다. 한경혜·윤성은(2004)은 가족영역에서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이라는 말로 이를 지적하였는데, 한국가족이 부계친족 및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계를 중심으로는 규범화된 친족유대의 경향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실제적 필요에 의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데서 기인한 결과이며, 한국사회 전반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영역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는 동기를 분석한 연구결과(Lee & Bauer, 2013) 외조모의 경우에는 성인 딸의 양육담당자 역할을, 친조모의 경우에는 성인 아들의 부양담당자 역할을 지원,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혀져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이면에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이재림, 2013), 이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성에 따라 분업화된 역할이 조모에게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라 할지라도 성인 아들의 엄마와 성인 딸의 엄마의 동기와 책임감은 그 종류가 사뭇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손자녀 양육지원이 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그들이 전담해 왔던 가족 내 역할 공백, 그 중 취업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자녀양육(46.4%)’<sup>4)</sup>, 그리고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조사된 ‘육아부담(62.8%)’<sup>5)</sup>은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나눌 가족구성원의 부족과 국가정책의 부재로 인해 가중되어 왔다. 특히 유교적 가족주의가 자리 잡은 문화적 특징 탓에 가족 내에서 아동돌봄의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은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역할을 더해준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손자녀 돌봄을 일컫는 ‘황혼육아’라는 신조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황혼육아를 맡는 조모들의 상당수가 양육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조선일보, 2010)고 보도하거나 ‘손주병(YTN, 2014.9.29)’, ‘족쇄’(국민일보, 2014.10.1) 등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단어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신체적 건강악화와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손자녀양육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손자녀인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발달단계상 때에 맞지 않는(off-time) 역할 수행이며, 양육을 수행할 신체적 에너지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발생하므로,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Bowers & Myers, 1999; Hayslip & Henderson, 1998; Jendrek, 1993). 그럼에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보육에 대한 낮은 신뢰도, ‘내 핏줄’이라는 가족주의 가치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맞벌이 여성에게 주요한 양육전략이 되고 있다.

뜻하지 않게 손자녀를 전담양육하게 된 조모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모들은 신체적 부담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 개인적인 시간의 부족, 다른 손자녀도 돌봐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Oburu, 2005; Kelly · Whitley · Yorker, 2000; 김문정, 2009; 김오남, 2007; 오진아, 2006).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는 조손가족 조모의 삶의 만족도보다는 높지만, 비양육 조모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김은정 · 정순돌, 2011; 양소정 · 정경미 · 김원경, 2008; 배진희, 2007)을 미친다.

최근의 연구는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전혜정 · 조규영 · 박민경 · 한세황 · Wassel, J. I., 2013). 손자녀 양육을 통해 조부모는 그들의 손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Goodfellow & Laverty, 2003)는 연구가 있다.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를 돕는 것이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손자녀 양육을 통해 조부모는 가족 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구성원 사이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효능감이 생기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Wheelock & Jones, 2002)는 연구결과도 있다.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조부모가 얻게 되는 이점에는 손자녀를 돌보면서 받는 젊어지는 느낌, 생의 연속성 등이 있었으며,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잘하지 못했던 점들을 수정하여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Neugarten & Weinstein, 1964, 전혜정 외, 2013에서 재인용).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노화과정 속에서

3) 통계청, 2005

4) 통계청, 2011

때에 맞지 않는 손자녀 양육 역할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정서적, 경제적 보상감을 통해 손자녀 양육을 오히려 ‘할머니됨’의 보람되고 유익한 경험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김은정 외, 2011).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손자녀 양육을 스트레스가 아닌 노년에 보람을 주는 새로운 역할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으로 손자녀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결과나 부담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조모에 대한 확장된 시각의 개입을 가능케 한다.

한편 손자녀 양육이라는 상황이 단순히 조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측면보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사회문화적, 상황적 맥락과 현상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조부모에게 항상 만족, 기쁨만 있을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손자녀 양육이 심리적 부담과 압박이 될 수 있다. 같은 손자녀 양육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인자녀의 가사까지 도맡아하는 경우 조모의 심리적 부담감은 크게 나타났으며(전연우·김윤숙·조희숙, 2012),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는 ‘양육지각’이 높은 사람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강유진, 2011).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개인주의적 생성감이 높을수록, 가족의 도구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조윤주, 2012).

백진아(2013)는 중장년 기혼 여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조모들이 손자녀 돌봄을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가족의 안녕과 절대성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적 문화의 지배적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또 조모들의 이중적인 행위양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성별분업관을 적용시키고, 딸에게는 보다 양성평등적인 의식을 교육하고 실천한다고 하였다. 즉 자발

적이고 능동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수용하는 조모들은 딸의 양성평등한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강한 부적상관을 가지지만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진다(김은정 외, 2011)고 한다. 조모들은 손자녀를 돌보며 성인자녀와의 연대감을 경험하고 세대 간 연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Wood and Liopsis, 2007), 성인자녀와의 원활한 관계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있어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함은 가족개입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가족적 상황으로 손자녀 양육 조모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 가족이 겪는 변화를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 III. 연구방법

####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손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조모와 실제 손자녀가 있는 조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험과 자연 언어를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가족 내 역동과 조부모기의 모습 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생애주기상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기 혹은 개인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시기인 예비조부모의 모집단 파악이 어려운 점과 본 연구의 대상인 조부모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채택하였다.

인터뷰 기법으로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한 상호작용과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경험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준다(김성재·오상은·은영·손행미·이명선 역, 2007)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포커스 그룹은 기본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4). 함께 모여 논의하는 포커스 그룹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며,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거나 지지, 강조되어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보다 통합적 견해를 얻을 수 있다(김미옥, 2007). 또한 포커스 그룹은 너무 익숙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연구의 주제를 다룰 때 장점이 될 수 있다. 조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영숙, 2014)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별 예측이나 생각 없이 일상적인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기 쉬우며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자연스러운 답변이 바로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FGI를 선택하였다.

FGI에서 참여자 범주에 적합하게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분할이라 하는데, 분할된 표본들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할 때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동질성은 그룹 내의 참여자들 간에 대화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그룹과 그룹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검증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김성재 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손자녀와 친손자녀를 구분하는 분할, 예비조부모와 실제 조부모를 구분하는 분할을 적절히 하여 그룹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이자 예비조모만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그룹 인터뷰 시행 후 동질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룹 내 토론과 역동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추후 인터뷰부터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공존하게 하는 그룹을 구성하고자 의도적인 노력을 하였다.

보통의 FGI를 다룬 외국의 문헌들은 6~10명의 그룹을 권장하지만, 이에 엄격하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그룹은 한 그룹이 4명으로 이루어진 다소 작은 미니그룹인터뷰(Mini Group Interview)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니그룹으로 구성한 이유는 토론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그룹의 크기가 커지면 토론에서 소외나 배제를 겪는 참여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연구가 끝난 후 각각의 참여자들의 발언빈도와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4명의 참여자가 대략 비슷한 정도의 발언과 참여도를 보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자료수집, 분석방법 및 연구윤리

포커스 그룹인터뷰는 2014년 2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인터뷰와 인터뷰 중간에도 전자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그룹 구성원 설정과 진행방식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룹 인터뷰는 포커스 그룹의 동질성을 우선하여 모두 예비조모이자 친정엄마로 구성했으나, 참여자의 특성을 혼합하여 구성된 두 번째 그룹 인터뷰 시행 후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과 다양한 주제가 도출되는 점을 반영하여 이후 그룹부터는 특성을 혼합한 구성을 주로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들과 전화통화로 연구의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며 연구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그룹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공지하였으며, 인터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의 녹취과정, 자료의 이용, 비밀유지, 폐기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다. 미리 준비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지만 주로 그룹 내 역동이 활발히 일어나 자연스럽게 주제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토론 초반이나 그룹 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

은 때에는 진행자(moderator)가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개입을 하였다.<sup>5)</sup>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동일한 한 명의 연구자와 한 명의 진행자가 총 다섯 번의 그룹인터뷰를 일관되게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하는 사람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moder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는 인터뷰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능, 즉 토론을 진행하거나 이끌어가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신경림, 장연집, 김영경 외 공역, Morgan, D.L. & Krueger, R.A, 1998). 모든 그룹은 그 자체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조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단의 역동성이 항상 연구 목적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되는 집단 역동의 토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4)하며 이것이 진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룹인터뷰는 1시간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고장이나 오류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보이스레코더를 사용하여 녹음하고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분석자료로 사용한 것은 인터뷰 당시 작성한 필드노트와 인터뷰 직후 작성한 인터뷰스케치, 그리고 전사자료이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 질적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와 진행자(moderator)가 작성한 각자의 필드노트와 인터뷰스케치, 전사자료를 서로 교차확인하며 다각적으로 검증하였다. 면접 내용, 면접에 대한 인상, 면접 중에 받아 적은 메모를 면접 후 24시간 이내에 작성하고 분석한 인터뷰스케치는 인터뷰현장에서의 생생함이 느껴지는 자료이며 이를 최대 72시간 이내에 연구자와 진행자가 다시 만나 토론하여 정리함으로써 면접에서 각자가 받은 인상과 주요 주제들의 비중에

대한 동의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의 세그멘팅 및 코딩에서도 연구자가 작성한 코딩내용을 진행자가 확인하는 동료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 오류나 비약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함으로써 잠정적인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일반적인 주제 분석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먼저 각 그룹인터뷰의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전사자료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전사자료들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면서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전사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주제의 개념들을 찾아나갔다.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자료를 나누는 세그멘팅 작업을 시작으로, 그 안에서 다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뽑아 본문 그대로의 코딩을 실시한 후, 범주화하였다. 세그멘팅과 코딩을 통해 감환(reduction)된 인터뷰자료와 객관적인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연관 지어 분석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모들의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손자녀 양육을 둘러싼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역동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에는 엄격한 윤리적 이슈가 있는데,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 비밀보장 등의 이슈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본명, 지명, 회사이름 등 개인의 신분이 밝

5)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한국연구재단 SSK 소형연구단 ‘맞벌이 부부의 일과 삶’ 팀의 학문후속세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인터뷰 사례비와 전사비용이 충당되었으며, 연구단 중 다수의 인터뷰 경험을 가진 연구원이 진행자(moderator) 역할을 수행하였다.

혀질 만한 정보는 가명처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에 의한 연구참여자의 심리사회적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 3.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모집은 주로 지인들의 소개를 통

한 눈덩이표집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그룹마다 구성과정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개별적으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참여자 개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그룹은 한 명의 참여자가 자신 주변의 지인들 중 본 연구의 참여자 조건을 갖춘 이들 3명을 모아 그룹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서로 친밀한 관

〈표 1〉 참여자 인적사항

	이름	조부모 여부	자녀 수	손자녀 수	손자녀 양육경험 여부	첫 기혼자녀 결혼시기
#1	박영미 (57세)	예비	3녀	.	.	장녀: 2013년 12월
	박현아 (57세)	예비	3녀	.	.	장녀: 2013년 9월
	박수애 (54세)	예비	1남1녀	며느리 임신중	.	딸: 2012년 10월
	전정현 (60세)	예비	2녀	.	.	장녀: 2013년 12월
#2	정영희 (58세)	조부모	3녀	외손녀1(만4세)	과거 전담양육	장녀: 2010년 11월
	박옥자 (57세)	조부모	1남1녀	외손녀1(15개월)	현재 전담양육중	장녀: 2012년 7월
	권영자 (60세)	예비	2남	며느리 임신중	.	장남: 2011년
	신용희 (59세)	예비	1녀	.	.	딸: 2013년 5월
#3	선양미 (65세)	조부모	1남1녀	친손자2, 외손자1	정기적	아들: 2005년 11월
	박정윤 (64세)	조부모	2남	친손자1	정기적	장남: 2008년 12월
	정충효 (53세)	예비	1남1녀	며느리 임신중	.	아들: 2013년 4월
	김말자 (64세)	조부모	1남2녀	친손녀1, 친손자1, 외손자1	비정기적	아들: 2007년 3월
#4	선희미 (58세)	예비	1남3녀	.	.	장녀: 2014년 1월
	조명아 (58세)	조부모	1남1녀	외손녀1	비정기적	딸: 2012년 4월
	구지현 (58세)	조부모	1남2녀	외손자2	정기적	장녀: 2006년 11월
	김봉연 (58세)	예비	1남1녀	.	.	아들: 2014년 3월
#5	정점자 (57세)	조부모	2남	친손자3 (5살, 3살, 1개월)	비정기적	장남: 2007년
	조정진 (57세)	조부모	2녀	외손자1(5살) 외손녀1(3살)	과거 전담양육	장녀: 2008년 10월
	이순명 (58세)	조부모	2남1녀	친손녀1(4살) 며느리, 딸 임신중	자녀와 동거	장남: 2011년
	민복레 (59세)	조부모	2남	친손녀1(7개월)	양육지원 안함	장남: 2012년 4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하였음

계였다. 세 번째 그룹 역시 4명의 참여자 모두가 아는 사이였는데, 이들은 오래된 직장동료로서 서로의 사생활이나 상세한 가족사를 모두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번째 그룹은 한명의 참여자가 자신의 지인들을 모았다는 점은 두 번째 그룹과 동일하나 나머지 세 명의 참여자가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이들은 인터뷰를 진행한 날 초면인 사이였다. 다섯 번째 그룹은 한 동네에서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비슷한 연배의 이웃사촌들로, 거의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 중 한 명 이상을 결혼시키고 아직 손자녀가 출생하지 않은, 현재 손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조모와, 이미 손자녀를 본 조모로 이루어져있다. 총 20명의 연구참여자 중 단 한명의 손자녀도 출생하지 않은 예비조모는 9명이며 이 중 3명은 연구 참여시점에서 며느리가 임신 중인 상태였다. 11명의 조모에게는 한 명 이상의 손자녀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자녀 전담양육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2명, 그리고 현재 전담양육을 하고 있는 참여자1명을 만날 수 있었다. 총 20명의 연구참여자 중 현재 정규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는 5명이었다.

## IV. 연구결과

### 1. 조모가 인식한 할머니됨과 손자녀의 의미

손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본인이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며,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생기는 사건이다. 예비조모와 현재 조모인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손자녀는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보았다. 손자녀의 의미는 ‘할머니됨에 대한 수용’과 ‘내 자녀의 부

모됨 기대’로 범주화된다. 할머니됨에 대한 수용은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는데, 기대와 감격으로 수용, 자연스러운 이치로 수용, 젊은 할머니로서 모순적 수용이다.

예비조모들은 손자녀에 대한 기대로, 현재 조모들은 손자녀와의 첫 대면을 회고하며 감격으로 할머니 됨을 수용했다. 손자녀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이들은 기꺼이 ‘할머니’가 되고자 했고, 또 되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중년기 후반에 있는 이들 참여자들은 할머니가 될 자연스러운 나이가 되었으며, 나이가 되었을 때 할머니가 되는 것은 또한 순리라는 자연의 이치로 할머니됨을 수용하고 있었다. 다만, 연구참여자 가운데 최연소자였던 #3-A(53세)와 #5-A 참여자는 ‘할머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연소 참여자인 #3-A는 함께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언니들(60대) 정도가 할머니되기에 적합한 나이라고 하며, ‘할머니’라는 단어에는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손자녀에 대한 기대와 애정은 분명했다. 즉, #3-A 참여자가 보이는 ‘할머니’에 대한 거부감은 ‘할머니됨’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아니라, 단순한 언어적 거부감임을 알 수 있다. #5-A 참여자는 ‘할머니’가 엄청 충격적이었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다고 절망감을 드러냈지만, 결혼 초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첫 아이를 유산한 며느리를 위해 한약을 지어먹이는 등 손자녀를 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거부적 반응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해, 이들 두 참여자의 거부적 반응은 단순히 ‘할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근거한 반응이며, ‘할머니됨’에 관여하는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할머니됨에 대한 모순적인 수용이라 할 수 있다. 가능한 또 다른 해석은 ‘할머니’라는 단어를 정의함에 있어서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정의로는 산업생산과 인구재

〈표 2〉 할머니됨, 손자녀의 의미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하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빨리 할머니 되고 싶어 했던 편이었어요. 딸들한테 막 “언제 나 할머니 좀 시켜줘 봐.” 내가 키운다고도 안 하면서... 그냥 아이들하고, 말하자면 손주들하고 지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한테 책임이 없는 아이니까. (#1-A)</li> <li>- (할머니가 되는 것이) 그냥 기다려져. 얼른 빨리 낳았으면 좋겠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2-B)</li> <li>- 강아지한테 다른 사람 ‘엄마, 아빠’ 하잖아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래 가지고는 ‘강아지가 이렇게 이쁜데 애는 얼마나 이쁠까’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막 강아지 갖고 막 그래. (#2-A)</li> <li>- 개를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렇게 아휴... 할머니라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 딱 대면했을 때 그때가. 그때 정말 나도 할머니가 됐구나. 다른 사람은 할머니가 싫다는데 나는 할머니가 (된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2-D)</li> <li>- 손자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막 좀 뭐라 할까 좀 재미도 있으면서 변화가 되지요. 이 가정생활이. 더 즐겁다고 봐야 할까? 엄청 재미는 있어요. 막 손자 보고 손자 또 봤다가..... (#5-D)</li> </ul>	<p>기대와 감격으로 수용</p>	<p>할머니됨에 대한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가 될 자연스러운 나이(50대 후반)(#5-C)</li> <li>- 할머니가 될 때는 돼야지, 그거는 순리여요(#5-D)</li> </ul>	<p>자연스러운 이치로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 소리는 사실 듣기 싫은데, 애기는 보고 싶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니, 이제 53살인데, ‘할머니’ 하면 그래도 나이가 좀 언니들 정도(60대)는 돼야죠. (#3-A)</li> <li>- 충격이었단가요. 할머니라고 하니까 충격이었어. 내 나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엄청 충격이드만. (#5-A)</li> <li>cf. 엄청 피곤한가봐, 어린이집에 (교사로) 다니는 것이. 그래 가지고 자연유산이 되어 버렸어. 내가 “때가 있는 거다 애기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니까...” 못 다니게 했어. 그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또 약을 먹여서... 한약까지... 할머니 될라고...</li> </ul>	<p>젊은 할머니로서 모순적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기다린다고보다 우리 애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었으면....., 우리 애가 엄마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여서 느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감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혼 안 하면 모르잖아. 애기 안 낳아보면 모르고. (#4-A)</li> </ul>	<p>내 자녀가 엄마, 아빠 되는 것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기가 있어야 둘이 울타리가 쩡쨍하고 그럴 것 같은데(#1-C)</li> </ul>	<p>자녀가정의 견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기를 못 가지려나 그 생각 때문에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엄청 그때 걱정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1주일간. 그래 가지고 그쪽 우리 시어머니... 아니, 우리 사돈 쪽은 자기 아들 몸에 좋다는 보약을 막 홍삼이니 보약이니 다 대고 막 한참 줬 그랬어요. (#1-C)</li> <li>- 혹시나 임신이 되면 그냥 낳아라. 요즘 유산하고 어찌고 하면 불임확률이 높다 하더라. (#1-B)</li> <li>- 나도 이제 보통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해두 임신을 못하는 불임부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게 은연중 조금의 걱정은 되더라고. 애기 소식이 얼른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요새 불임이 또 많아 가지고... (#2-B)</li> <li>- 손녀 봐주는 아줌마 딸도 사위가 농협 다니고 하는데 딸이 자궁내막 그것이 있어 가지고 애기 갖기가 좀 어렵다고 막 그때 그래 가지고 많이 울었어. 그 아줌마가 울더라고, 딸이 그러니까. (#2-C)</li> <li>- 솔직히 딸 결혼시킬 때 엄마들 걱정은 요즘 난임도 많고 불임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게 좀 다가와. (#4-C)</li> </ul>	<p>자녀불임 걱정에서 해방</p>	<p>내 자녀의 부모됨 기대</p>

생산 두 측면에서 모두 생산가능연령을 벗어난 ‘늙은 여성’을 지칭하지만, 가족관계 내에서의 ‘할머니’는 역할의 정체성이 확실하며,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손자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내 자녀의 부모됨에 대한 기대이다. 내 자녀가 부모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비조모들이 손자녀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제 막 결혼한 자녀의 가정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자녀를 기다리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참여자가 손자녀를 기다리는 큰 이유는 자녀불임의 걱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 불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참여자들은 ‘나의 자녀도 혹시?’ 하고 불안한 마음에 어서 빨리 손자녀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불임의 원인이 주로 여성의 문제라는 편견 때문에 딸의 엄마인 친정엄마 예비조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조모의 변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FGI를 실시한 다섯 그룹에서 모두 조부모전환기 가족이 손자녀양육을 둘러싸고 겪는 역동적 변화를 포착하고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조부모전환기 가족은 동거, 비동거의 거주형태를 불문하고 3세대 확대가족으로 관계의 범위가 확대되며, 관계맺기의 빈도도 손자녀양육지원을 둘러싸고 증가하였다. 먼저, 가족의 역동을 묘사하기 위해 가족 간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역동적 성격을 규명해보았다.

가족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자녀가 결혼을 통해 새 가족을 꾸려 분가하는 중년기 가족의 특징은 ‘진수기’ 혹은 ‘빈둥우리시기’로 대표되는 가족규모의 축소를 겪는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뷰

를 통해 본 중년기 가족들의 역동은 축소가 아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의 교류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도 많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모의 역할은 가족 내에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모들은 자식들 교육을 모두 마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을 시켜야 하고, 결혼을 시켜놓으면 부모역할이 “대강 끝나는 것 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변화는 갑작스럽다. 갑작스럽게 결혼시켜서 갑작스럽게 손자를 본다. 결혼시키면 끝 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럽다고 하기보다는 재미가 있는 변화라서 즐겁다. 어려움이 공존하긴 하지만, 태어날 손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반갑다. 그들은 중년기의 생활을 ‘계속되는 새로운 시작’, ‘산 너머 산’이라고 표현했다. ‘새로운 시작’ 속에서 그들의 역할, 다른 가족원 간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 1) 조모 자신의 다양한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관계의 변화 이전에 조모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예전의 것과 달라진 점을 이야기 했다. 자녀를 결혼시키기 전, 혹은 손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실제 사건을 겪으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자녀의 결혼이나 손자녀의 출생이라는 사건이 닥치기 전, 막연한 생각으로는 독립된 생활을 구상했던 조모들은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조모들 안에 내재화된 자녀에 대한 지원 의식을 짐작케 한다. 세 번째 절인 성인자

녀와의 관계 역동에서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손자녀를 ‘꼭 봐줘야지’하는 생각 없었으나, 속도위반으로 결혼하여 경제적(한달 100만원의 생활비), 도구적(쌀, 반찬 등) 지원을 받는 아들내외, 그리고 결혼 전부터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봐줘야한다고 했던 딸이 신혼집까지 친정 가까운 곳으로 얻어 얘기를 낳으면 안 봐줄 수 없는 상황... (#1-C)

내가 봐준다 소리는 안 했지. 그런데 엇그제 만나면서 양친구청 앞에 어머니여성교실 있잖아, 여성교실. “애, 저기 가면 뭐 요리도 하고, 양재... 뭐 배울 게 많다. 나 저기서 꽃꽂이도 배웠고, 요리도 배웠고 다 했다.” 그랬더니 저도 배운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니 배울 때는 내가 가서 얘기 봐줄게.” 소리가 나온 거야. 나도 모르게 나왔어. “오전이나 오후에 보면 우리 시간 맞춰서 그때 내가 봐줄게.”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더라고. 그러는데 뭐 형편 따라서 해야지요. (#2-A)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다음에 오면 반찬을 뭘 해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거 8개 플라스틱 통을 사 가지고 와서 우리 남편한테 “내가 진짜 이런 거 안 할라 했는데, 이렇게 사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좋은 일이라고 그러대요. (#3-B)

우리 엄마가 꾸역꾸역 메고 이고 지고 막 그렇게 와요. 떡 해 가지고 막... “엄마, 좀 하지 좀 말어. 엄마, 제발 좀 하지 말어.” 그래 가지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한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4-D)

조모들의 내재화된 지원의식은 이 전 세대에서 전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자 #4-D는 자신의 친정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지원을 떠올리며 이를 다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베풀어줘

야 한다는 지원의식을 ‘마음의 짐’이라 표현 할 만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친정엄마가 내가 학교 가고 없으면은 엄마가 와서 연탄... 옛날에 연탄 땀어요. 연탄불도 같이놓고, “연탄불이 꺼졌어.” 그러면 엄마가 어느새 와서 연탄불도 다 해놓고, 시골에서 시부모님이 토요일 날 올라오신다고 그러면은 전화로 “엄마, 또 오신대.” 그러면은 밥도 안 해보고 시집을 간 사람들이 뭘 얼마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집에 있는 것 싹 준비해 가지고 생선까지 다 구워 가지고 시부모님 밥상 위에 딱 차릴 수 있게... (중략) 그러면은 얼른 받아 갖고, 지금 생각하면 고맙단 소리도, 고생했던 소리도 너무 할 줄도 몰랐어. 바보야. (#4-C)

제가 딸 혼자 컸어요. 엄마가... 엄마가 온전히 저한테 다 바쳤거든요. 평생... 일생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나는 애들한테 10분의 1만 해주면... 그러니까 항상 짐이에요. 엄마한테 받은 것을 나도 애들한테 베풀어야 한다는 그게... 그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애들이에요. 애들이 엄마 손이 좀 필요하면 그거 그냥 거절 안 해요. (#4-D)

## 2) 조모의 부부관계 변화

조부모전환기에 조모의 부부관계 변화는 크게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는 일부 참여자들이 ‘남의 식구’라고 표현한 며느리, 사위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성인자녀들보다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들의 배우자 앞에서 말을 가려한다거나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니 부부사이가 좋아지는 것이다.

며느리를 얻으니까 부부사이가 더 좋아져. 왜 그러냐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 놓고 느그들 잘 살라 해야지. 그래서 (며느리가 있으면) “예, 어르신” 그리고.. 그렇게 해지지... (#5-A)

이물 없는 남편한테도 함부로 못하지. 며느리 있으니까. (#5-B)

조모들은 젊은 시절 남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조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주로 감정표현에 관한 것이었다. 젊은 시절 본인의 자녀들을 기를 때는 양육에 참여하지 않으며 무심한 모습을 보였던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자 손자녀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예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갑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해요. 7살짜리 애를. 아주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 (#3-D)

(할아버지가) 아주 변해. 엄청 변해. 손녀딸은 이뻐서 죽어 아주. 그즈 애기들은 그렇게 안 길렀으면서. 무심했어. 애기들... 우리 애기들한테는 기저귀를 치워줬는가 어쨌는가. 학교 다닐 때 아들이 몇 반인가 몇 학년... 몇 학년인가는 안디,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지. 근디 손녀딸은... (#5-A)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 아주 살살 녹제. 이뻐서. (#5-D)

시아버지가 며느리 안 이뻐하는 시아버지 하나도 없어. 시아버지는 진짜 며느리 이뻐해요. 그것이 썩 좋지는 않아.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아. (#5-D)

조모의 부부관계 변화의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기 시작한다. 물론 조모도 며느리와 손자녀가 예쁘고 챙겨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지만, 자신에게는 무심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손자녀를 챙기면서 자신의 역할이 늘어나는 경우, 자신에게 잘해주라고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경우에 반발심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금요일 날은 쉬고 싶어. 토요일도 쉬고 싶고. 근데 우리 아저씨가 계시면 (전화로)“있니?” 그러면 (우리집으로) 바로 오는 거야. 거품목욕 있잖아, 그거까지 챙기고 내복 챙겨서 있잖아, 어제... 엇그제 토요일, 일요일 날도 거품목욕 하는 거 갖고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 아저씨가 셋겨요. 그 두 놈을 갖다가 목욕탕에 넣고 거품목욕을 해서 거품을 막 말도 못하게... (뒤치닥거리는 할머니의 뉘) 또 (밥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 나는. 반찬도 아이들 반찬은 또 따로 해야 하잖아. 그니까 너무 힘든 거야. (#3-D)

엇그저께 내가 진짜 너무 아팠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인제 애기를 모유를 먹이니까 살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아픈 일은 안 생각하고 며느리 살 빠졌다고 맛있는 거 해주라고 그래. 성질나지. (#5-A)

### 3) 성인자녀와의 관계 변화

자녀의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을 겪으면서 조부모전환기에 들어서게 된 참여자들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결혼한 성인자녀에게 이전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없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이는 단순히 성년에 이르게 되는 나이들 보다 ‘결혼’이라는 사건이 성인이 되는 사건임을 암시하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진정한’ 성인이 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다름을 뜻한다.

성인자녀와의 관계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대하기 어려움’으로 표현되는 관계 내에서의 조심성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결혼한 성인자녀에게는 그 전과 달리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심스러우며 출산과 관련한 이야기는 부부의 프라이버시이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딸은 둘이다 사위랑 애 욕심이 없애. 즈그 말은. 피임 하나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1-B)

젊은 애들(성인자녀들)이 있으면 옷 입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고. 말이며 밥 먹는 것도 더 신경써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기는 해요. (#1-D)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도 생활비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3-A)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생각해지고... 딸도 결혼을 하면 하기 전보다 더 말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애. (#5-B)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살지. (#5-C)

아들도 결혼을 시켜 놓으면 말조심을 엄청 해야 돼요. 함부로 못해요. 결혼 안 했을 때하고 틀려요. 아들도. 아들도 결혼 안 했을 때는 막 말도 막 하고 한다... (#5-D)

성인자녀와의 대화주제가 한정적으로 축소되는 것에서도 아들과 딸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딸과의 대화는 보다 허용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들, 특히 며느리에게 하는 말들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웬만한 이야기는 참고 안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특히 경제적, 금전적인 주제의 대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임을 확실히 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 ‘의 상하는 것’을 염려하며 조금이라도 언짢을 것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며느리한테 돈 얘기 절대 안 해요. 우스갯소리로 한 마디 딱 하죠. “야, 니네 생활비 좀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들이 있을 때 같이 얘기해요. 혼자 있을 때 절대 얘기, 그런 거 안 해요. (#3-A)

이제 나는 딸하고 아들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해요. 딸은 자기 신랑 월급 같은 것도 꼭 이야기하지만, 아들은 “너 얼마 타니?” 해도 절대로 이야기 안해. 우리 딸은 내가 말 안 해도 “엄마, 월급이 얼마큼 올랐네. 어? 소급해서 나왔네?”이러면서 즐거움을 엄마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언제 올랐는지.. 이야기 안 해. (#3-D)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이렇게 조심성이(있어야 한다)... (#5-A)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입 덮은 것이 수여. 거기서 입 뺨긋하거나 하면은 의 상해. (#5-D)

결혼 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경우 아무리 잦은 방문을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확보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독립적인 생활과 관계가 가능해지지만, 근거리에서 거주하며 잦은 교류를 할 경우 결혼 전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심한 경우 결혼 후에도 엄마인 자신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딸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면서 부부중심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왔다.

개는 한 달 동안 집에를 안 가는 거야. 싸우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애 데리고 우리 집으로와 버리는 거야. 가지도 않고. 하루는 술을 먹고 12시쯤 왔어, 사위가. “장인어른 ㅇㅇ씨(아내) 좀 보내주라.”고 “집 좀 보내달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빨리 트렁크에다 얼른 싸가지고 빨리 가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가기 싫다.” 그래서, “빨리 가. 너 남편 따라서 빨리 가.” 내가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았어. “이제부터는 이 서방이 너 친정에 가라고 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절 안 받아들였어. (중략) ‘아, 이게 너무 감싸고 돌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네들끼리 부부간에 융합도 되고.. (#2-D)

중년기에 축소되는 가족의 형태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던 이론들과는 달리 조모들은 미혼의 성인자녀는 물론이고 결혼한 성인자녀와 그 배우자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집안에서 실권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모유도 먹어야 되고, 자식은 분유는 안 된다. 모유는 꼭 먹여라. 최소 1년은 먹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면 저희 아이들은 거기에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따라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들이 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요. (#3-A)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딸도 회사를 그만두게 했고,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아까운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게 했고, 우리 며느리도 그만두게 했고 (#3-D)

이러한 부모로서의 시혜적 역할수행이 자녀의 거부적 반응으로 좌절되었을 때, 조모들은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은 조모에게 있어 안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봐줄 요량으로, 반찬도 해주고 할 요량으로 “아야, 우리 집 근처에 얻어라.”고 했는데, 안한다고 저 멀리 쪽으로만... (#1-D)

“야,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 “엄마,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나 잘살고 있어.” 너무 쉽게 그렇게 엄마로부터 뭐라 그럴까... 나로부터 빨리 떨어져 나가버리더라고요. 지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이걸 완전히 딸을 시집보내도 완전히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내보냈다는 생각을 못하고, 좀 멀리 살아도 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도 많이 주고 반찬도 많이... 옛날 우리 친정엄마가 했던 것처럼 많이 나르고 나는 그럴 걸로 생각을 했는

데, 우리 딸이 딱 그걸 단절을 하더라고. “엄마, 필요 없어.” (그럴 때) 서운해. 많이 서운해요. (#4-C)

아쉬운 사람이 자식이 아쉬워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뭘 얻어가야 되고 부모님한테 부탁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자식이 아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쉬워요.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해주고 싶어서) (#4-D)

이처럼 가족 역동은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혼인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친 자녀와 새롭게 가족구성원이 된 자녀의 배우자를 대하는 조모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의 변화, 그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 결혼 전과는 사뭇 달라지는 성인자녀와의 관계 변화는 예비조모와 현재 조모가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다. 변화 양상을 띠는 가족 역동은 손자녀 출생을 거치며 다음 절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성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 3. 가족 역동의 성격; 교류와 갈등의 증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녀의 임신소식을 듣고, 손자녀를 기다리고, 태어난 손자녀를 보살피는 과업을 수행중인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 가족이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가족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잦은 물리적 접촉, 많은 상호 자원의 교류가 일어나며 교류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도 생겨나게 된다.

#### 1) 교류

결혼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은 단순하게는 반찬나누기부터 경제적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반찬조달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원의 형태로 손자녀가 태어나기 전 결혼

한 성인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이며, 출가 후 자원교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애들이 식사나 이런 거 살림을 잘 안 해 봐놔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가끔은 반찬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1-D)

애가 밥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 반찬 먹고, (#2-D)

요즘 애들은 모르잖아요, 뭘 할 줄도 우리 딸을 보면은 암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가서 우리 아들이 뭘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해서 반찬을 하게 됐어요.(#4-B)

먹을 것도 다 가지고 가잖아. 가방이 아주 나들도 못하게 다 들고 가. 맛있는 거 해 가지고.(#4-C)

결혼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아직 취업준비 중인 아들 부부에 대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긴 했지만 이를 통해 자녀의 독립은 ‘결혼’보다 ‘취업’에 더 많은 비중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립 없는 완전한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진리와 같은 명제를 재확인한 셈이다.

준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부모가 다 대주죠. 생활비를 한 달에 100 주고, 김치며 쌀이며 고기 같은 것 반찬 수시로 해주고 있고, 아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지적공사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거 시험 한 번 볼 때까지만 우선 참고 우선 공부해라. 그동안은 우리가 생활비를 대주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1-김수복)

성인자녀가 둘 이상일 때는 자녀 지원 시 자녀들 간 형평성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간접경험을 언급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차별적 지

원은 형제자매 간 우애를 망치고 트러블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치’임을 강조하였다.

첫째 하면 둘째도 봐줘야 되고, 셋째도 다 봐야 돼. 같이 보다 보면 딸이 다 틀리다 그런다고 하면 이 얘기만 또 이빠하면 똑같이 해도 자기 눈에는 둘째를 더... 그것 가지고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1-B)

처음에 잘해야 돼. 동서는 셋이나 돼가지고, 딸이 셋인데, 첫 애를 어디까지 봐줄 건지, 어떻게 봐줄 건지를 잘 생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딸이 “왜 우리 애는 안 봐주냐” 그럴까봐 (#1-A)

나는 딸이 셋인데 걱정이네. 왜냐하면 공평하게 해줘야죠. 큰애는 가장 혜택을 좀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둘째하고 셋째하고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큰애 때만큼은 못해줘요. (중략) 그래도 조금씩은 다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2-D)

며느리하고 딸하고 차별을 많이 두서 가지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 나한테 서운하게 해주시고 상처를 많이 주서 가지고 나는 며느리한테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그래야지 그런 게 항상 마음에 배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중략)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정치를 잘해놓고 가야 돼. 부모가. 손주는 봐두고 자식, 지네 형제들 사이에 정치를 잘해놓고 가야 돼. 죽어서 없어도, 돈은 없어도 우애 좋게... (#5-B)

아래 제시한 인용문에서 예비조모인 한 참여자는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원거리 거주와 손자녀가 없는 것으로 꼽고 있다.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잦은 빈도의 지원을 수행하는 다른 참여자들(#4-C, #4-D)과 비교했을 때, 손자녀의 탄생 이후 교류의 모습이 변화될 가능성을 스스로 암시하고 있다.

외지에 가 있어서, 광주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어서 뭐 친정엄마 노릇 별로 못해 주고 있어요. 아직 아이도 갖지 않고 (#4-A)

실제로 조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의 교류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활발해진다. 처음에 반찬으로 시작한 지원이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확대되면서 그 빈도와 지원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 2) 갈등

함께 상호작용하는 삶은 많은 교류를 의미하지만 그만큼의 갈등도 내포하고 있었다. 가족의 역동 중 갈등적인 측면은 딸의 육아를 돕는 친정엄마와 사위의 갈등이라는 다소 새로운 이슈부터 아주 오래된 가족갈등의 주제인 고부갈등까지를 포함한다. 또 손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주양육자인 딸과 친정엄마가 겪는 갈등도 부각되었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정 내의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면서 처가와 의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가족갈등으로 고부갈등처럼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하여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모의 입장에서 사위와 관련된 갈등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장모 입장이라, 되도록이면 거기에 간섭을 안 하고 싶어요. 요즘은 장서사이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섭 안 하고... (#1-D)

(내 친구는)사위가 밍다여. 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사위가 딱 데려가 버리니까 사위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미워서 죽을라 해. 뭐 조금만 잘못하면 트집을 잡고. 그게 장서사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1-D)

편하게 있다가 느그 신랑(사위)만 온다고 하면 막 상 집도 좀 치워야 하고... 사위가 어려우니까 (#2-D)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우리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갓집에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맡겨도 처갓집에 맡기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 하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대대.” 옛날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가 그랬듯이 지금은 사위들이 장모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4-B)

(딸의 집에 가서) 얘기보고,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와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불편을 안 끼치기 위해서. 아 근데 우리 딸이 좀 늦는 거야. 그래서 사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딸이 들어왔어. 그러면 나 밥도 안 먹고 (와버려). 친정엄마는 그래. (#4-C)

사위가 어렵고. 한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사위가 굉장히 어려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라고 할까... 서로 남남끼리 만나 갖고... (#5-C)

옷도 난닝구바람으로 있기도 하고 내의바람으로 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어.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있나. 내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갖고 딸 시집살이 사위 시집살이를 하는 거야. 궁게 서로 뭐라 그럴까... 서로 조금씩 이렇게 눈치를 서로 보는 거제... 서로가 편치를 앓아. (#5-C)

며느리를 가진 조모들은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시어머니들이 언급하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의 것이 아닌 며느리와의 거리감 같은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사소한 일로도 쉽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어머니들이 갈등의 요인이 될 만한 언행을 미리서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집 와 갖고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떠냐고 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너만 괜찮으면.” 근데 첫 생각은 처음에... 엄마라고 하

면 엄마마냥 다정한 어떤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건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구요.(#3-A)

그게 며느리야. 너무 많이 섞이는 건 원하지 않아. 어느 선이 딱 있다구. 선이 있고 그래야지 시어머니라고 너무 또 친해도 안 되니까. (#3-C)

우리도 며느리 눈치 봐. 말도 못해. (#5-A)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입 덮은 것이 수여. 거기서 입 뺨긋하거나 하면은 의상해. (중략) 딸이 아니라 또 며느리라 하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며느리랑) 시어머니하고 (손등을 부딪치며) 이려고 적 되는 거여. 다 참고 사는 거지. (#5-D)

세 명의 시어머니가 모였던 5차 그룹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그들은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선을 그었는데, 대화 속에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며느리에 대한 기대나 표준이 어떠한지를 짐작케 했다.

#5-B : 며느리는 며느리여.

#5-D :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이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돼. 바보 같은 소리여. 딸은 안 돼.

#5-A : 절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절대 딸이 안 돼. 며느리는 며느리여. 이렇게 지가 하는 것을 가만히 내가 관찰을 해보면 내가 나는 성의껏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더라고.

#5-B :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며느리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아들에 대한 서운함의 감정이 드러나는 언급도 있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은 주로 엄마인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챙기는 것 같은 아들의 태

도에 대한 서운함으로 나타났다.

솔직히 말하는데... 마트를 가면 그그 마누라 (며느리)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만 사. (중략) 장가보내면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돼. (#5-A)

딱 같이 있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임신이 되어 가지고, 전화를 해오 회사에서. 그러면 지네 인자 마누라하고 전화했으니까 마누라한테 물겠지요? “밥은 먹었냐. 밥 저기 거르지 말고 먹어라.” (중략) 간접적으로 며느리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당연한디 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인제 기분이 안 좋제. 속으로 '키워놓으니까 그그 마누라랑만 말하고 있네.' 그러제. (#5-B)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이야기 한 것은 의외로 딸이었다. 딸과 엄마는 매우 친밀하고 ‘이물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딸의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엄마가 많은 만큼, 손자녀 양육지원 과정에서 자주 부딪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방치하듯 맡기는 딸, 반대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모질게 잔소리를 하는 딸이 있는가 하면, 손자녀 양육 방식에서 딸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막 뭐 에 하나하나 하는 것 갖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마 내게 심하게 말을 모질게 하더라고. (#2-C)

직장 갔다 오고 지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목욕을 시켜야 하고, 내가 뭐하고 그러면 가만히 저는 있는 거야. 그러면 어쩔 때는 약이 오르더라고. 뭘 애가 저렇게 생겼나 싶으니까 딸은 안하고 내가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했는데, 목욕시킨다든지 우유주든지

해도 저는 가만히 있고 내가 완전히 식모인거야. 어, 진짜. 내가 몸이 활동적이고 좀 좋을 때는 쾅 찰는데, 내가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만히 있고 나를 시키면 내가 완전히 짜증이 나는 거야. (#2-D)

힘들어서 새벽에 딸하고 싸운 적이 있어, 4시에. 나는 젓을 먹여라, 애가 우니까. 사위는 자는데. 시간을 맞추대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뭘 맞추냐. 우리는 올면 쫓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싸우고 나 간다고 소리소리 치니까 사위가 막 뛰어나와서 왜들 그러시냐고... 새벽에. 딸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려우니까... (#3-C)

나는 힘들게 본다고 봐줬어요. 그런데 애기가 다쳤어. 그러면 “애기가 어째 다쳤당가?” “아니, 어떻게 지가 거시기 하다가 미끄러져버렸다.” 그러면 “잘 봐야제.” 그러면 진짜 서운해요 그제. 저(딸)는 뜻이 없이 말을 했는데, 내가 듣기는 나는 나대로 본다고 봤는데 다치게 만들었다, 저것이 어째 말을 저렇게 한 데... 그러면 좀 서운해. 진짜 서운해. (#5-C)

가끔은 엄마하고 딸하고 조금 인자 그렇게 티격태격 하잖아요. 원래 엄마하고 딸은 티격태격해요. 친정엄마 입장에서 보면 가끔 볼 때는 서운할 때가 많애. 딸이. ‘저렇게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래.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5-C)

갈등은 비록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부모전환기의 가족 내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둘러싸고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절대량이 늘어난 역동적 상호작용의 일부라고는 하나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우울감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선행연구(최윤희, 2012)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만큼 갈등상황을 최소화하는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통해 중년기가 되어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가시키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완전히 분리 독립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잦은 빈도의 교류와 자원교환, 그리고 갈등의 모습까지 동반한 활발한 역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결혼 후 분리해 나간 자녀세대의 핵가족이 근거리에서 거주하며 수시로 자원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하는 수정확대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각각의 핵가족들이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로 활발한 교류를 보이는 계기는 ‘손자녀의 출생’이라는 사건이며, 손자녀 양육지원을 둘러싸고 많은 자원의 교류와 갈등이 일어나 활발한 역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정확대가족화, 특히 모계적 수정확대가족화는 기혼취업여성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는 ‘Bendable Generation’의 개념은 세대관계의 변화가 성별관계의 변화보다 용이했음을 역설한다.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남성의 일 중심적 사회문화 내에서 강고한 성별관계(Unbending Gender)의 벽에 부딪힌 여성들이 핵가족 내 젠더질서를 변화시키기보다 친족적 세대관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강이수·김경희·김들순 외, 2009)한 것이다. 친족적 세대관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은 형태적이기 보다는 관계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확대가족적 동거형태가 아니라 수정확대가족의 양상으로 모계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갖는 의미와 배경을 조모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조모들이 가진 경험과 생각, 민속적 지식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방법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여 조모들이 가진 생각의 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찬반토론 과정을 통해 동일집단 내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할 수 있었다. 한 그룹당 4명씩 다섯 그룹,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아직까지 단 한명의 손자녀도 출생하지 않은 예비조모는 9명, 한 명 이상의 손자녀를 가진 현재 조모는 11명이었다.

연구결과, 시간적인 순차로 볼 때 조부모전환기에 들어선 조모들이 겪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할머니됨’이라 할 수 있다. 예비조모와 현재 조모들은 기대와 감격으로, 자연스러운 이치로, 때로는 조금 모순적으로 할머니됨을 수용하고 있었다. 또 자녀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자녀가 혹시 불임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해방시켜줄, 내 자녀의 부모됨을 기다리는 것도 할머니됨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역동은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족역동의 성격으로, 외국이론의 ‘빈둥지’ 모델이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와 기능면에서 교류와 갈등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3세대 확대가족의 모습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변화의 중심에는 조모가 있었다. 연령으로 50대에 해당하는 중년기는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독립하는 시기이며 빈둥지로 표현되는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축소, 부모역할의 상실, 다가올 은퇴와 관련한 직업역할 상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모습은 많은 상호작용과 갈등을 동반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 가

족에서의 부모 자녀관계는 비이원적이고 공생적인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빈 보금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구의 가족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명자, 1998)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손자녀가 있는 현재 조모들을 통해 이런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 손자녀 양육 지원을 둘러싸고 활발한 역동을 보이는 조부모전환기 가족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조모 자신의 모습, 조부모의 부부관계,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모두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이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역동의 성격 역시 긍정적인 모습의 교류와 부정적인 모습의 갈등이 모두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역동적 모습이 보여준 또 하나의 특징은 분명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지만 주로 부모시혜-자녀수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 가운데에 조모가 자리하고 있으며, 역동의 중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현재 ‘할머니’라는 단어가 통칭하는 여성노인의 삶은 가족 안의 역할로 축소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할머니’는 나이 든 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생산가능연령을 벗어난 여성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한다. 이때 생산가능연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생산하는 출산가능연령과 산업사회에서의 생산가능연령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할머니됨을 모순적으로 수용하는 일부 참여자들의 모습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이들은 사회적 의미의 ‘할머니’를 거부하며 가족 내에서 이전과 같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여성으로서의 할머니는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의 할머니 역할이 ‘손자녀 양육자’로 한정되어 있다면, 손자녀 양육을 담당할 때 효용을 발휘하고 손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지원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은 때가 되면 그 역할조차 축소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거시적으로 멀고 큰 틀에서 볼 때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점점 약해지며, 손자녀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역동은 손자녀 양육기가 지나면 점차 축소되거나 사그라질 것임이 예측된다. 따라서 가족 내 역할에 국한된 것만이 아닌 사회적이고 새로운 할머니의 인생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내에서 바람직한 할머니 역할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돌봄을 전제로 손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3세대가 공생하는 가족문화창출자이다. 전제되어야 할 자기돌봄에는 자녀나 손자녀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과 부부관계 중심의 가족생활, 또래 친구 관계 유지 등 개인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자녀세대와의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 맺기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중심가치를 무시하고 가족 공동체적 관심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조모 자신의 삶을 풍요롭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성인자녀세대와 겪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역동 중 손자녀 양육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며, 이는 돌봄부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딸과의 갈등 대부분은 손자녀 양육지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나친 가족 공동체적 관심과 과중한 돌봄부담은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2030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가족 미래 시나리오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부담이 감소하며, 개인중심가치는 강화되는 시나리오이다.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로,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간의 부담이 적어져 이로 인해 오히려 친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전통적인 3세대 가족의 모습이 고부관계로 대표되는 갈등양상을 보이는 속박하는 가족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현재의 3세대 가족은 연결고리가 약한 두 개의 핵가족이라 할 수 있다. 조부모전환기 가족의 역동에서 강력한 연결고리로 보이는 손자녀 양육지원은 손자녀가 성장하여 그 필요성이 소멸된 후 더 이상 역동의 근원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손자녀 양육지원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조모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손자녀 양육에 느슨하게 참여하지만 그 참여가 자발적이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동참하는 친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맺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형성은 사적으로 국한된 가족 내 관계맺기에서 나아가 공적 세대관계 조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내 손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을 돌보는 할머니, 책 읽어주는 할머니 등, 부모세대가 주는 긴장감 없이 조모세대가 주는 편안함 같은 장점을 살린 3세대 공생문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손자녀 양육지원을 통해 축적된 할머니의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도 있다. 실제로 곳곳의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책 읽어 주는 할머니’ 프로그램은 동화구연지도 자격 등 할머니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조모가 없어 세대관계 형성이 어려운 아동과의 세대 간 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가족 내의 사적인 세대공생을 공적인 세대공생관계로 전환시켜 줄 새로운 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세대공생이 가능케 하는 것, 할머니의 삶이 잉여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자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은 이들을 통해 인생 후기에 쓸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찾는 것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커다란 과

제에 직면해서 그 시작과 종료를 모두 포함해서 개인인생설계하고 이를 해낸 할머니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와 같은 것이다. 조모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를 바탕으로 한 정책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2) 강이수·김경희·김들순·김미경·김혜경·류임량·마경희·박기남·신경아·이순미·장미경(2009) 일·가족·젠더. 한올아카데미
- 3) 고선강(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4) 국민일보(2014) 노인이 노인 수발·손자녀 육아 족쇄...재앙 돼버린 '은퇴 없는 실버'. 2014.10.1.
- 5)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6) 김문정(2009) 손자녀 양육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미영(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미옥(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 9) 김성재·오상은·은영·손행미·이명선 역(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서울:군자출판사
- 10) 김애순 역(2004)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1) 김애순 역(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2) 김오남(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 16, 59-84.
- 13) 김은정·정순들(2011) 맞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 양육보상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285-310.
- 14) 노영주 역(199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 응집성과 변화. 하우기획출판
- 15) 동아일보(2012) 다시 부모 부모품으로... '연어족' 늘어난다. 2012.8.25
- 16)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II. 서울:교문사
- 17)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18) 백진아(2013) 중장년 기혼 여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돌봄공백의 가족주의적 대응. 담론 201, 16(3), 67-94.
- 19) 보건복지부(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20) 성미애(2006) 중년 기혼남녀의 가족/친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303.
- 21) 신경림·장연집·김영경·이금재·최명민·김혜영·김옥현·김영혜 공역(2004) 질적연구방법 포커스그룹. 현문사
- 22)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3) 양소정·정경미·김원경(2008)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15-432.
- 24) YTN(2014) '손주병'아십니까...'황혼 육아' 증가 추세. 2014.9.29.
- 25)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26) 옥선화(2011) 한국 가족제도와 가족생활문화의 변화.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간행물, 127-172.
- 27) 옥선화·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67-76.
- 28) 이영숙(2014)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의 주관성 탐구 : Q방법론적 접근.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05-217.
- 29) 이영숙(2004)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73-681.
- 30)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31) 이재림(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 32) 장경섭(2011) ‘위험회피’시대의 사회재생산 :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2), 1-23.
- 33) 전문희(2010) <마더> : 모성의 괴기함 또는 신성함. 한중인문학연구, 31, 267-292.
- 34) 전연우·김윤숙·조희숙(2012) 손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75-199.
- 35) 전혜정·조규영·박민경·한세황·Wassel, J. I.(2013)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 36) 조윤주(2012) 다문화 가족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79-109.
- 37) 조선일보(2010) ‘황혼육아’, 노년층 우울증 키운다. 2010.11.17.
- 38) 주봉관(2000) 손 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최윤희(2012)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우울감에 관한 연구: 손자녀 돌봄 노동실태와 자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0) 통계청(2014) 경력단절여성 통계
- 41) 통계청(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42) 통계청(2010) 사회조사보고서
- 43) 통계청(2008) 사회조사보고서
- 44) 통계청(2005) 가족실태조사
- 45) 한경혜·김상욱(2010) 세대 간 지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회학, 44(4), 1-31.
- 46) 한경혜·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3.
- 4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한국의 2030 가족 미래 시나리오와 정책방향
- 48) Bowers BF, & Myers BJ.(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49) Goodfellow, Joy & Laverty, Judy(2003) Grandcaring: Insights into Grandparents' Experiences as Regular child care providers, Early Childhood Australia.
- 50) Hayslip, B., Jr., & Henderson, C. E.(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6, 367-384.
- 51) Jendrek, M. P.(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621.
- 52) Kelly, S. J., Whiteley, D., Sipe, T. A, and

- Yorker, B. C.(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p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4(3), 311-321.
- 53) Lee, J. & Bauer, J. W.(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381-402.
- 54) Neugarten, B., K. K. Weinstein(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6, 119-204.
- 55) Oburu, O.(2005) Caregiving stress and adjustment problems of Kenyan orphaned children raised by adoptive grandmothe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99-210.
- 56) Wheelock, J. & Jones, K.(2002) Grandparents are the next best thing; Informal childcare for working parents in urban Britain. *Journal of Social Policy*, 7, 441-463.
- 57) Williams, Joan.(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58) Wood, S., & Liopsis, P.(2007) Potentially stressful life events and emotional closeness between grandparents and adult grand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28, 380-395.

- 투 고 일 : 2014년 12월 31일
- 심 사 일 : 2015년 2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5년 2월 9일